비보존 주주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함께 힘을 모아 비보존을 정상화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읍시다

비보존 주주 여러분, 코스피는 5,800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3,000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때 82,000원을 기록한 비보존의 주가는 4천원 대까지 내려앉았다가 이제 겨우 7천원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호재라고 판단되는 뉴스를 내보내는데도 주가가 이런 것은 비보존이 얼마나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소외**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주주연대는 공식 입장문과 요구서를 통해 회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법상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요건까지 갖추었습니다.
졸속 계약 추진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주주간담회 개최와 핵심 현안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정당성, 자금 집행의 합리성, 임상 및 기술이전 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소통하겠다며 만들었다가 **2년 전 폐쇄한 카페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주 전체의 집단적 의사표시**뿐입니다.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우리는 **주주 추천 감사 후보자 2인의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개정 상법 시대에, 회사가 누구의 회사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

1. 12년째 "가속화 중"이라는 기술이전

오피란제린의 기술이전은 2014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 2014년: <홍석철> "일부 업체는 이미 자료 검토를 마친 상태고 긍정적 회신"
- 2019년: <이두현> "탑라인 결과들이 도출되면 기술이전 활동도 **급물살**"
- 2020년: <이두현> "구체적 조건 협상 중인 해외 업체들이 존재"
- 2021년: <이두현> "올해는 기술이전의 결실을 반드시 이뤄내고자"
- 2022년: <이두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가 관심"
- 2023년: <이두현> "거래 규모가 크든 작든 가까운 시일 내 **최소 한 건의 기술이전**"
- 2024년: <이두현> "글로벌 빅파마들도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2025년: <홍석철> "40여 건 미팅", "**논의 무르익은 만큼** 의미있는 결과 이끌어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술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년간 반복된 낙관적 메시지와 실질적 성과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단순한 '시간 문제'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 실제 텀시트 단계까지 진전된 적이 있었는가?
- 협상 결렬 사유는 무엇이었는가?
- 사업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협상력이 훼손되지는 않았는가?

회사가 답하지 않는 이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주주 추천 감사밖에 없습니다**.

2. 그룹 자금 구조 – 누구를 위한 우선순위였는가

비보존 제약은 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가 폭락으로 전액 조달에 실패했습니다(최종 325억).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LO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그 결과 비보존이 보유한 비보존 제약의 전환사채는 또다시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에 한 차례 연장된 채권입니다.

추가 담보 설정은 없었습니다.
채권 회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비보존은 메리츠증권 전환사채 원금 60억 원을 이자 포함 약 93억 원에 상환했습니다.
그 자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악명이 높은 상상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채권은 반복 연장
- 외부 금융기관 채무는 고금리로 상환
- 현금은 유출되고 채권은 장부에만 누적

이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선순위는 과연 비보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합니까?

이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리스크가 논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를 점검해야 할 주체가 바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입니다.

3. 상표권 이전 – 2,700만 원 vs 1.98억 원

2024년 6월 24일, 비보존은 그룹 상표권을 비보존 홀딩스에 2,7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비보존 제약의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확인된 **정당한** 양도가액은 1.98억 원이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 이전에는, 왜 상표권이 **정당한 양도가액의 1/7 수준의 가격**에 이전되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거래가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감사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홀딩스는 상표권 양수 이후 비보존과 비보존 제약으로부터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 사용계약은,

- 계열사 간 매출 공제 없음
- 증권신고서 정정 이전, 광고선전비 미반영
- 브랜드 가치와 직접 관련 없는 수익(홀딩스로부터 받는 이자와 보증료, 비보존 제약이 비보존의 기술이전 활동을 위탁받아 성사시킨 경우에 얻는 수수료)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는 구조

비보존 홀딩스는 이두현 대표가 **83.05%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비보존은 받을 돈을 **채권**으로 쌓아두고,
홀딩스는 받을 돈을 **현금**으로 수취합니다.

이 구조를 점검하지 않은 채 "**투명한 지배구조**", "**준법경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4. 미국 임상 3상 – 자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보존은 올해 미국 임상 3상 착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 총 소요 자금 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공동개발 파트너는 존재하는지
- 2032년 특허 존속기간과 상업화 일정은 정합적인지
- 고농도 주사제 특허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미국 임상 3상의 설계와 연조직/경조직 임상 2건의 수행 방안은 무엇인지

이 핵심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습니다**.

오피란제린의 미국 FDA 허가는 비보존의 핵심 사업 목표입니다.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주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5. 상장은 왜 미루는가

어나프라주의 한국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음에도 비보존은 상장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전이 있어야 상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기술이전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다수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이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구조를 정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만기 연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강화되는 소액주주 권리와 금융당국의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감시로 비보존이 상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장 지연을 지적한다고 하여, 상장 시도를 핑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 추천 감사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오히려 가산점을 받을 일입니다.

6. 매출액이 아니라 처방액입니다

매출 인식은 출고 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공은 실제 처방 규모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에도 **사용기한 초과 시 반품 가능성, 반품충당부채 추가 인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처방 규모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나프라주와 비슷한 시점에 허가를 받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는 이미 주기적으로 처방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7. 등기이사가 아닌 자의 실질적 경영 관여 의혹

최근 몇 년 간, 사업 의사결정과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등기이사가 아닌 특정 인물이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약 등기이사도, 감사도 아닌 인물이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 이사회는 이를 통제하고 있는가?
-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이는 상법상 경영 위임(특별결의사항)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

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영향력만 행사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회사 리스크입니다.

이 문제는 소문으로 방치될 사안이 아니라 **감사가 공식적으로 점검해야 할 영역**입니다.

8. 감사위원회 전환 가능성 –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 추천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비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3% 룰이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입니다.

감사위원회 체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가 주도하는 감사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번을 놓치면 최소 3년,
어쩌면 상장 전까지 주주는 구조적으로 배제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피란제린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구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통제의 부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독립 감사 선임은 경영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경영이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주주 추천 감사 선임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집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주주 추천 감사 선임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 변경, 절차적 지연, 의안 상정 거부 등 다양한 시도가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 비용
- 전자위임 수수료
- 우편 발송 및 위임장 확보 비용
- 법무법인 등 자문 비용
- 헤이홀더 '가치헤요'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을 놓치면 **최소 3년**입니다.
감사위원회 체제로 변경되고, 지금과 같은 구조가 굳어지면 주주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습니다.

비보존이 진정으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회사가 되도록, 그로써 우리가 가진 비보존의 주식이 시장에서 **온전히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독립 감사 선임을 위해 헤이홀더 '**가치헤요**'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보존 소액주주연대 입장문 및 요구서>

<비보존은 그동안 어떤 말을 해왔을까?>

비보존 주주연대 입장 링크

https://open.kakao.com/o/shzqXv2h

2026. 2.

비보존 주주연대 드림